

## “기존 그룹웨어 · 기업 포털 프로젝트 개편 작업 동시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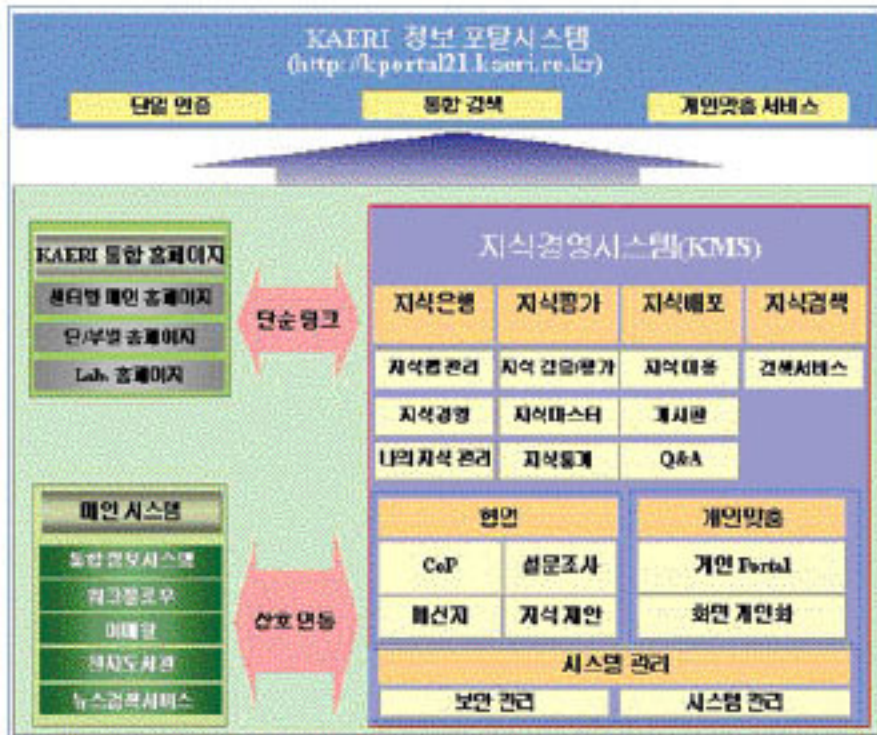
- ▶ IT분야 신기술 창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원장 임주환·ETRI)은 정보통신 기술들을 통한 지식혁명의 중심기관으로서 세계적인 정보통신 연구기관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ETRI는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시스템이나 업무 환경의 혁신도 필수적이라고 판단, 갈수록 많아지는 업무처리를 위한 시스템 수와 기존 클라이언트/서버(C/S) 환경에서 작동되던 시스템들을 웹 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 플랫폼을 도입했다.

ETRI는 최근 기존 그룹웨어를 전면 개편하는 작업과 기업 포털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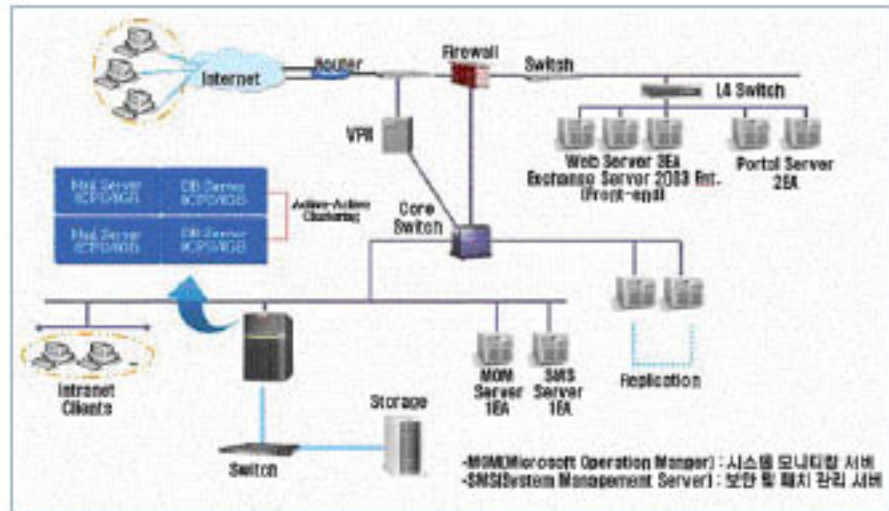
연구원들의 업무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자는 과제를 안고 업체를 모색하던 중에 일반적인 기업 포털의 요구사항 외에 시

스템 관리 측면의 용이함과 확장성, 플랫폼 측면을 고려해 날리지큐브의 'K\*Cube EP'를 선정하게 됐다.

ETRI의 엔터프라이즈 포털은 포털 구축에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는 사용자 구축을 Active Directory와 통합 인사 DB와의



▲KMS 시스템구성도



▲ETRI 시스템구성도

상호작용으로 구성해 필요한 데이터의 수정은 푸시 에이전트로 상호 업데이트가 되도록 해 시스템의 일관성을 유지시켰다.

시스템 구축 전 ETRI는 주로 사용하는 시스템 가운데 C/S 프로그램이거나 Java Applet 프로그램이 많았다.

이는 업무의 제약이 많을 뿐 아니라 공간에 대한 제약이 많아 시스템 활용도를 낮추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TRI는 기존 C/S 환경만큼의 보완성을 유지하면서도 업무 환경을 개선하는데 주력했다.

그 결과 해외 근무 연구원이나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한 고객들의 환경에 맞게 인증은 공개키기반구조(PKI) 기반 인증과 ID/PW 방식의 두 가지 형태를 제공하고, VPN 사용자들은 공인인증서 방식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ETRI 연구원들의 업무 프로세스는 대부분 데스크톱 PC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번에 구축된 유비쿼터스 CMS라 이름 붙여진 EP시스템은 3,000여명의 직원들을 2대의 서버에서 서비스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을 만큼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는 K\*Cube EP의 캐시 엔진으로 인해 CPU와 메모리를 거의 점유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날리지큐브의 K\*Cube EP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다.

신은경 날리지큐브 EP사업본부 본부장은 “로드밸런싱을 위해 설치된 포털 간에 백엔드 네트워크 속도와 공유 스토리지의 성능만 보장된다면 사용자의 증가에 대비할 때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분산 시스템 유기적으로 통합

ETRI는 포털에 연동해 K\*Cube EP C/S Launcher로 구동시키고 주로 보는 콘텐츠는 따로 포틀릿으로 도출해 개인화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포틀릿으로 도출된 콘텐츠들은 업무에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으며, 따라서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을 구동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ETRI는 분석하고 있다.

또한 ETRI는 포털 인터페이스에 있어서는 포털 초기화면 노출시킬 콘텐츠를 최대한 많이 배치하고, 인터페이스는 트렌드에 맞춘 테마와 스킨을 포털 엔진에 적용했다.

김상도 ETRI 정보관리팀 인프라담당 책임기술원은 “각각 분산돼 별도로 운영되던 시스템들간의 유기적인 통합 작업으로 인해 업무와 시스템이 별도로 운영되던 격차를 줄여 업무의 편의성이 증대됐다”며 “포털이라는 큰 그림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향후 도입되는 시스템들에 한해서도 연동이나 구축시간이 축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ETRI는 이번 포털 구축을 통해 유비쿼터스에 날개를 달기 위한 전초작업을 진행하고 점차적으로 연동 시스템들이 개편될 때마다 정형화된 프로세스로 포털에 연동할 계획이다. 또한 진정한 유비쿼터스를 이끌어내는 선도적인 연구원 포털이 되기 위한 웹서비스 지원 플랫폼을 충분히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